

개원20주년기념

## 숫자로 본 충남연구원

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던가?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는 연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을까? 일단 바로 생각나는 건 최근 연구원 이름이 ‘발전’을 뺀 충남연구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.

**1995년 6월, 그리고 2015년... 스무해의 변화를 압축해서 알아보도록 하자!**

### 비교체험! 1995 vs 2015

우선 1995년도에 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그 당시 충청은행 본점 2층에서 첫 출발을 했다. 전체 직원수는 계약직까지 포함해 총 16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열정만큼은 어느 연구원보다 뒤지지 않았다. 그러던 연구원 가족이 지금은 센터를 포함해 117명으로 7.3배가 늘어났다. 조직도만 봐도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알 수 있다. 1995년 당시에는 연구기획실, 지역개발실, 산업경제실, 그리고 행정실 등 달랑 4개실에 불과했지만, 현재는 1실 1단 1소 6부 7센터로 확장되고 전문화되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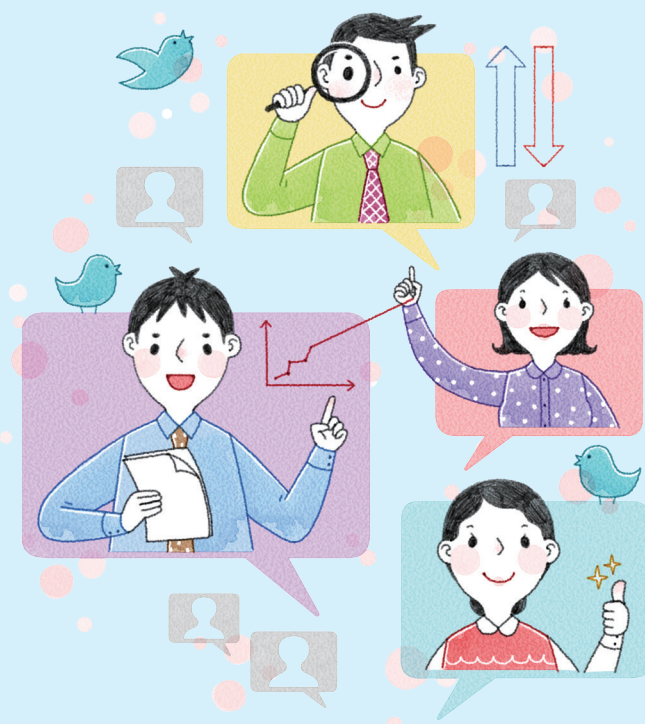
아무래도 직원수 차이는 사업예산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, 1995년도 예산은 3억 9800만원이었고 올해 2015년 예산은 141억 3900만원으로 약 36배나 증가한 것이다.

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쓰였을까? 충남 도정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연구사업비로 대부분 쓰였다고 보면 된다.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구된 과제들은 몇 건이나 될까? 1995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진행된 누적연구과제는 전략과제 444건, 기본과제 88건, 현안과제 1560건, 수탁과제 858건, 조성사업 749건, 출판 2105건, 기타

78건 등 총 5882건이나 되었다. 매년 평균 290건을 수행한 것과 같다.

이제 우리는 왜 이런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해왔는지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한다.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도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. 지난 20년 동안 충남도민(외국인 포함)은 185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늘어났다. 즉 우리 연구원이 챙겨야 할 고객이 27만 명이 더 생긴 것이다. 20살의 어른이 된 충남연구원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. 그렇다고 마냥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. 반대로 보면 우리 연구원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기에... ‘충남발전’을 넘어서는 충남연구원의 또 다른 20년 후를 기약하며!

저자 \_ 충남연구원 정봉희



# 1995년 Vs 2015년

자료 : 충남연구원 내부자료

  
직원수

  
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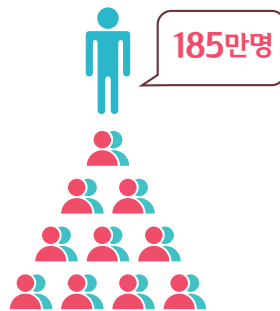
  
고객  
(충남도민)

  
연구성과

 1995년, Starting



3억 9,800만원



 2015년, Growing



141억 3,900만원

